【2012. 8. 30(목) 강원일보】

# 평창올림픽 외지업체만 배불릴 판

## 도내에 본사 둔 건설업체 1년새 111곳 증가
## 특수 노린 철새업체 전입 러시… 지역 업계 위기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린 철새 업체들의 도내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기준 건설업 조사(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본사를 둔 총 건설업체 수는 3,792개로 전년 3,681개에 비해 111개(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건설업체 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영난 악화로 계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대형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특수를 기대한 외지업체들의 전입 러시가 이어지며 증가했다는 것이 지역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43개에 이어 올해 현재까지 27개 업체가 신규 회원사로 등록한 가운데 외지에서 이전한 업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내 건설업계는 동계올림픽 유치가 남의 잔치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00년대 들어 도내에서 자연재해 발생 시 타 시·도 업체들이 대거 몰려오면서 상당수의 공사가 이들에게 돌아갔다. 또 이들 외지업체는 각종 사업을 수주받거나 일부 참여해 공사를 마친 후에는 기존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사업이 있는 곳으로 옮겨갔다.

그동안 도와 지역 건설업계는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특별법 시행령 내 구체적인 지역업체 보호방안을 요구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특히 '철새업체 전입 방지'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시행령 제정 논의단계부터 반대해 현재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강원건설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지난해부터 외지업체의 본사 이전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중대형업체로 지역 중소업체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실질적인 지역업체 우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

◇정동기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30일 오후 2시 원주 센주리 21클럽하우스 회의실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회장 회의에 참석해 건설환경 변화와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

◇도체육회(회장: 최문순 지사)와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 정동기)는 29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강원육상 꿈나무 육성 매년 3천만원 지원

## 도체육회-건설협회 도회 협약

도체육회(회장:최문순 지사)와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정동기)가 강원체육발전을 위한 꿈나무 육성 및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체육회와 대한건설협회 도회는 29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도육상경기연맹 회장의 당연직을 맡는다. 또 육상종목의 저변 확대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도육상경기연맹에 매년 3,000만원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도체육회는 육상 종목의 발전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동기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선수의 정신력과 실력 외에도 꾸준한 지원이 훌륭한 선수를 만든다"며 "체육의 기초가 되는 육상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질을 갖춘 선수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지사는 "어떤 종목이든 육성의 비결은 꾸준한 지원과 관심뿐"이라며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기초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김상태기자 stkim@kwnews.co.kr

【2012. 8. 30(목) 강원도민일보】

# 강원 발전 '5개 대선공약' 확정

## 도, 여야 후보·정당에 제시

강원도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대륙전진기지 구축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 도의 미래가치를 담보할 대선 5개 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최문순 지사는 29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대륙전진기지 구축 △지역공동체 복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국가지원 △권역별 발전 공약 등 5개 과제를 12·19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여야 후보와 각 정당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공약 1순위로 제시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군사적·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고성군을 '남북일제(南北一制)'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이곳에 남북공동시장, 무비자왕래, 남북공동자치구 성

<대선공약 과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대륙전진기지 구축
△지역공동체 복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국가지원
△권역별 발전 공약

격의 자치권 인정, 설악~금강권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륙전진기지 구축은 양양~속초를 잇는 동북아 자유무역 지정과 설악산~금강산~백두산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 동해안권을 동북아물류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지역공동체 복원은 강원은행과 강원항공, 중증외상센터 설립 등으로 지역 과제를 지역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복안을 담았다.

이밖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국가 지원 방안과 춘천, 원주, 강릉, 탄광지역 등 권역별 특성화 발전전략들을 대선 공약 과제로 내놓았다. 도는 5개 과제를 포럼,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과 공약 가시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 지사는 "강원도가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존재 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발상이 필요하다"며 "토론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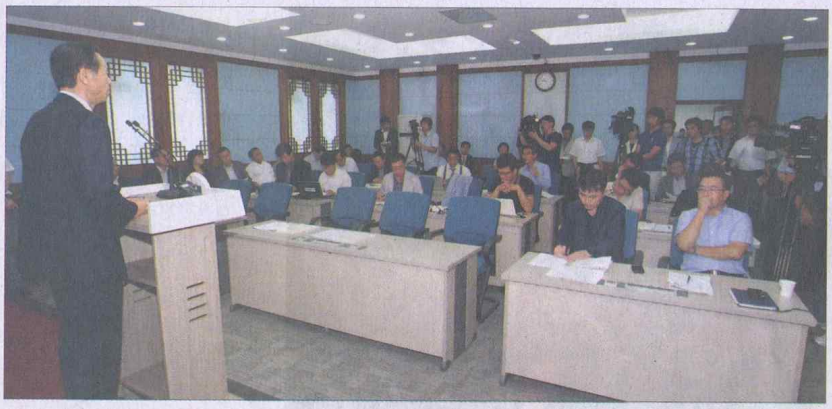
한편 도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등 강원 3대 현안은 대선 전까지 해결한다는 의지로 공약에서 제외했다.

안은복 rio@kado.net

# "남·북 고성에 평화특별자치도 조성"

## 도 대선공약 뭘 담았나

### 동북아 자유무역시장
### 향토은행·항공사 설립
###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 정부 매입·시설비 지원도



최문순 지사는 29일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 도 지휘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 5개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이재용

최문순 지사는 29일 오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대륙전진기지 구축 △지역공동체 복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국가지원 △강원 권역별 발전 공약 등 5개 대선공약을 제시했다. 이들 공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도는 남북고성군 전체 1523㎢를 남북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남한 자본과 북한 인력·자원 등을 활용한 남북경제협력 모델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특히 강원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준하는 입법, 조직, 재정, 교육 등 자치권이 부여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평화특구를 지정·운영하며 점진적으로는 남북 광역경제권을 형성한 평화산업단지 조성과 남북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예산은 남북협력교부세와 특별회계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대륙전진기지 구축

양양~속초를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소상공인들의 교역 활성화를 위한 동북아 자유무역시장이 조성되며 이곳은 무비자와 무관세로 운영될 예정이다. 러시아 대륙을 잇는 신광역교통망(TKR-TSR) 확충도 추진한다. 도는 △동해선철도(삼척~강릉~고성·167.4㎞) △내륙종단철도(원주~홍천~춘천~철원·122.8㎞) △경원선(철원~원산) △중앙고속도로 단절구간(춘천~철원 63㎞) △동해고속도로(삼척~고성·63.1㎞) △세종시 연결 남부고속도로(제천~삼척·123.2㎞) △남북종축고속도로(양구~영천·309.5㎞) 등의 조기 착수를 제안했다.

■ 지역공동체 복원

향토은행을 추진하고 있는 도는 정부와 도민, 지역상공인, 지역금융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방은행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지원을 이끌어낼 전략이다. 강원은행 설립 초기자본금으로 2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항공사인 강원항공 설립도 추진된다. 도는 항공교통 전문 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용역을 내년 상반기 착수한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국가지원

도는 평창 알펜시아 스포츠 지구 전체를 정부가 매입해 줄 것과 국립동계스포츠 콤플렉스 건립도 추가 요청하는 등 동계올림픽 경기장 일부 시설을 국가가 매입해 줄 것을 대선공약에 담았다. 특히 동계올림픽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경기장 등 대회관련 시설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설립과 '올림픽 명품도시' 육성을 위한 지원도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

■ 권역별 발전 공약

춘천은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육성하고 레고랜드 코리아 춘천 조성을 계기로 관련 기업과 멀티콤플렉스 사업 유치도 추진된다.

원주는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로 육성된다.

강릉은 △국제과학기술원 설립 △신 동북아권역 거점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동북아 연구개발단지로 조성된다.

강원남북권은 수소융합 연구단지 조성과 수소융합 상용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구 함태관광 재개발 등 에너지 거점 지역으로 조성된다.

안은복 rio@kado.net

## 경제인 동정

◇정동기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30일 오후 2시 원주 센추리21클럽하우스 회의실에서 열리는 건설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워크숍 및 제2차 전국 시도회장 회의에 참석한다.

# 복선전철 강릉시내구간 착공 가시화

## 마지막 공구 대관령 종점부~강릉역 17.7㎞
## 내달 입찰 공고… 규모 고려 분할 발주 검토

원주~강릉 복선전철(120.3㎞) 공사 구간 중 강릉시내를 통과하는 마지막 공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가 예정되고, 공구를 나눠 발주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는 등 연내 착공 준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29일 강릉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대관령 종점부~강릉역까지 강릉시내를 통과하는 17.7㎞에 대해 29일~오는 9월26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실시하고, 오는 9월 10일 오후3시에는 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 이르면 9월중에 입찰 공고가 이뤄지고, 시공사 선정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연내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릉시내 통과 노선은 당초 1개 공구로 발주가 계획됐으나 단독공사로는 규모가 큰 공사 금액과 도심을 통과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공구를 나눠 발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대관령~구정면 금광리를 거쳐 현재의 강릉역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은 강릉 도심 통과구간에서 지하로 철도 노선 등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그동안 기존 영동선 철도의 도심 통과로 시가지가 양분되고, 개발과 발전에도 적지않은 제한을 감내했던 부분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가지 환경을 새롭게 일신하면서 특히 도심의 부족한 가용 공간을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연내에 강릉시내 구간에 대해서도 본격 착공이 이뤄지도록 공사를 앞당긴다는 계획 아래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하고, 시공사 선정 등의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최동열 dychoi@kado.net

강원도와 도건설협회는 29일 오후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문순 도지사(사진 오른쪽 세번째)와 정동기 도건설협회장(사진 왼쪽 세번째)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육상선수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강원 육상선수 육성 힘 모은다

## 도·도건설협회 MOU

도와 도건설협회가 강원육상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와 도건설협회는 29일 오후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문순 도지사와 정동기 도건설협회장을 비롯한 김진학·윤기오·오인철 부회장, 김덕래 도체육회 사무처장, 최선근 도육상경기연맹 실무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육상선수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서 도건설협회장은 '강원도육상경기연맹회장'을 당연직으로 수행하며 육상종목의 저변확대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도육상경기연맹에 매년 3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도는 육상 종목의 발전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한편 강원육상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금 15개, 은 5개, 동 4개를 획득해 사상 최고 성적인 종합준우승을 거두며 도의 종합 8위 수성에 기여했다.

박주석